

01 교회소식

치료, 응답 그리고 변화와 소망!

'2017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후 진행된 은사집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를.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수한 기사와 표적으로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계수련회를 통해 세 가지 분야로 살펴본다.

03 간증

어둠을 벗고 빛으로 ...

사람의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하계수련회의 치료 간증을 통해 영의 세계를 살펴본다.

04 특집

“권능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다”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며, 사람의 근본 마음이 변화된 성도들의 행복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만민뉴스

제802호 2017년 8월 2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폭발적인 권능이 펼쳐진

‘2017 만민 하계수련회’ 은사집회



올해는 해외 37개국에서 참석한 가운데 ‘권능’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열렸다. 바람과 비, 구름 등을 통해 최적의 날씨가 조성되어 주변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졌으나 만민 하계수련회장은 시원하고 쾌적했으며, 첫째 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를 통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체험했다. 강사 이재록 목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에

게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 역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었다. 그 결과, 국내외의 많은 이가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성도들은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빛 가운데 거

하는 영적 장수가 될 것을 굳게 다짐했다. 이 외에도 분쇄골절, 안면마비, 갑상선 기능저하증, 돌발성 난청 등 온갖 질병이 치료되고, 세계 곳곳에서 온 농아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만민은
퍼펙트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목사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지역 총회장)**

저는 작년에 ‘만민 하계수련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되어 있어 모든 것

이 완벽했고, 일꾼과 성도들이 교회와 목자를 사랑하여 마음 다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또 주의 종은 물론, 성도들이 다니엘철야를 통해 매일 쉬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올해에도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만민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성도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모함과 믿음이 당회장님의 권능의 기도와 믿음과 하나 되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날, 교육 말씀은 매우 훌륭했고 은

사집회 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와 나가는 역사를 보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하나하나의 과정, 곧 귀신이 왜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으며, 어떻게 내어 쫓는지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큰 은혜가 되었지요.

그 외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바람과 기온의 조절 등 놀라운 기사, 표적과 권능의 역사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치료되어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은혜를 나누며 행복했습니다. 둘째 날, 체육대회 때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

습니다. 정말 만민중앙교회는 사랑으로 나타나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 캠프파이어 행사에 참석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대를 보면서 놀라웠지만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조직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화려한 기술과 무대, 조명과 음악 등 모든 것이 어우러진 화려함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성은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처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를 바라며, 이 성결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처럼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금번 수련회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권능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기온 조절이 필요하면 기온 조절로,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으로, 구름이 필요하면 구름으로, 비가 필요하다면 비로, 그밖에 필요대로 여러 형태로 모든 것이 최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확연히 구분하여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연히 구분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아픈 사람이 줄어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6년 4월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18세에서 74세까지 인구 중 평생에 한번 이상 정신 질환을 앓는 비율이 25.4%라고 합니다. 4명 중 1명꼴이지요. 세상 의학에서는 정신질환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결과라고 하지만 그 원인은 바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한 죄를 지었거나 부모나 조상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특히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절에 이름을 새기거나 무당을 불러 굿을 자주 하는 등 우상 숭배를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이나 무속인의 후손 중에는 선천성 장애자나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나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이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결과로 원수 마귀 사단의 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대로 쌓은 죄의 답을 헐고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의 가운데 이미 원수 마귀 사단에게 넘겨진 영혼들이므로 그들을 다시 되찾아 오려면 그에 상당한 값을 치러

야 하지요. 당사자나 가족이 한두 번 회개한다고, 혹은 열심히 봉사한다고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대부분 가족 간에 사랑이 심히 부족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지극히 겸비한 마음이 있었기에 귀신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비해 지금은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지요(사 53:5).

또한 죄악이 심히 관영한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재창조의 권능이지요. 재창조의 권능은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며 대신 공의를 쌓은 결과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듯이 대신 공의를 쌓은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면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재창조의 권능의 빛을 비추면 원수 마귀 사단은 물러갑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질 뿐 아니라 몸의 각종 문제들도 해결되지요. 귀신이 들려 귀 먹고 병어리 된 경우, 귀신이 나가면 듣고 말하게 됩니다. 마비된 몸이 풀리고 간질 증세가 사라지며 대상포진을 비롯해 각종 질병도 치료되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2. 영이신 하나님은 인생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걱정이나 두려움이 앞서나오? 아니면 따뜻한 위로와 힘을 얻으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도 지극한 선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면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로 인해 오히려 위로와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14절에도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도 입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정확히 아십니다. 마치 내 시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엑스레이로 찍어보듯이 오장육부의 상태를 훤히 아시지요. 그래서 치료의 광선이 발해지면 정확히 환부를 찾아 치료하십니다(말 4: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 아니라 마음도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치료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죄성, 악성을 뽑아버려야 하는지, 악 중에서도 시기가 많은지, 교만이 많은지, 혈기가 많은지, 간음이 많은지, 자기적인 의와 틀이 어떻게 굳어졌고 하나님의 의에서 얼마나 빛나갔는지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이처럼 다 아시기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며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도 주시지요. 그래서 신속히 마음 발을 개간하여 ‘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겔 36:26).

특히 정신질환은 그 근본 원인이 죄이지만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마음에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아 스스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 마음이 빼돌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외부로 향해 마음 문을 단단히 닫아버린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병의 원인이 된 마음의 문제와 그 영혼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므로 어떤 마음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사 61:1).

“2017 만민 하계수련회” 주제는 ‘권능’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선과 사랑 자체가 되시며 이러한 선과 사랑을 이 땅에 펼쳐 보이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알아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1. 영이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 7년간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서 ‘병 백화집’이라 불렸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단번에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물질의 축복도 받아 빛도 다 갖고 구제하며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이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저는 성경 66권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오늘날까지 44년 동안 변함없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셨지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치료해 주셨고, 물질의 문제나 각종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셨습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독자 시 **우송료만은 정가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올해 37세인 김은숙 집사님은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늘 싸우는 것을 본 데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리 잡은 미움과 분노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지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 2013년 7월 28일 본 교회에 등록한 후 각종 예배와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마에서 약 30센티 정도 되는 하얀 별레 한 마리를 뽑아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니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지요. 이처럼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따스한 손길을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3. 영이신 하나님은 자녀들도 온 영을 이뤄 큰 영광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며칠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소식이 궁금하고, 보고 싶지요.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거나 결혼해서 분가해 나간다면 항상 그립고 궁금할 것입니다.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가장 좋고 복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민수가 6장 24-26절에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대로 사랑

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것은 영원한 내세의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원토록 최고의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지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 22:30)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이끄시어 결국 열두 제자, 곧 가롯 유다를 대신 한 맛디아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제게도 ‘새 예루살렘 성을 채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재창조의 권능을 100% 완성하기 위한 공의를 넘치도록 채웠습니

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바꿔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무수한 기사와 표적으로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도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온 영의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매 순간 믿음과 소망이 쑥쑥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늘에는 기사로, 땅에는 표적으로, 크고 놀라운 권능을 펼쳐 보여 주시며, 온 영의 믿음을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해와 같이 빛나는 기쁨의 열매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폐증인 아들이 치료받아 변화되었어요”

율리아 고벨로바 성도 (41세, 영국)

제 아들은 자폐증으로 인해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치고 소리를 지르며 자주 화를 냈습니다. 부모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했지요. 말을 못하고 마치 동물과 같이 “우우! 어어! 아이!” 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이런 아들 때문에 저희는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요.

그러던 작년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후 아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저와 남편의 말에도 반응하였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하면 문을 닫았고, 비나 눈이 와도 인지하지 못했던 아이가 “네! 눈!”이라고 표현하였지요. 무슨 음식인지 구분하여 말까지 하였습니다.

올해 수련회 첫째 날 은사집회 시 기도받은 후에는 전보다 훨씬 좋아져 허리벨트를 혼자 차고 엄마, 아빠를 부르며 자기표현도 하는 등 이전보다 많이 바뀌었지요. 무엇보다 아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능의 빛으로 우울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신양금 자매 (23세, 서부산만민교회)

저는 열여섯 살 때부터 우울증으로 인해 불안, 초조와 왠지 모를 어두운 마음, 밤마다 기우에 놀리고 무기력하여 신경정신과를 전전하며 약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제 삶을 마감하고자 두 번이나 자살시도도 했었지요.

그러던 지난 6월,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지교회 총지도교사)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로 어둠이 빠져나간 뒤 몸이 아프지 않고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등이 들쭉일 정도로 배에서 꿈틀거리더니 둥근 모양의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입으로 빠져 나갔지요.

저는 더욱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 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하였는데, 수련회 1주일 전 꿈에 당회장님께서 제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시는 순간 붉은 불꽃이 보였고 이후 푸른 불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치료받았음을 확신했고, 수련회 첫째 날 당회장의 기도로 온전해진 것을 느끼며 간증으로 영광 돌렸지요. 할렐루야!



“간질, 다리 통증 등 귀신의 역사에서 해방되었어요”

박은형 권찰 (47세, 2대대 15교구)

저는 예전부터 다리가 자주 아팠고, 간질 증상이 있었습니다. 치료받기 위해 회개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또다시 다리가 아파 목발을 의지해야만 했지요. 그러던 중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이

번 수련회는 특별히 정신질환이나 악한 영에게 놓임받고 치료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기에 저는 수련회를 더욱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아침공식을 하며 당회장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듣고 만민기도원 은사집회에 참석해 회개하며 기도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당회장의 환자기도를 받고 있는데, ‘나 안 나개! 너 수련회 못 가게 할거야. 환자기도 안 나오도록 저 기계 부숴버려!’ 하는 소리가 들리며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드디어 수련회 첫째 날 단에서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제 몸은 떨리기 시작했고 두렵고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파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 제 안에 있는 귀신은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하고 항상 소외되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제 자신이 늘 구박받고 혼자였다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삶의 의미가 없고 무기력한 마음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며 그 안에 빠져들었고, 어느 날 제게 소곤거리는 소리에 위로와 따뜻함을 느끼며 귀신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의 권능으로 귀신은 나갔고, 간질 증상은 물론 다리 통증이 사라져 전혀 불편함 없이 잘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변화시킨 목자의 권능, 너무 감사합니다”

천중편 성도 (29세, 말레이시아)

아내(류아원)는 어느 때부터인가 입냄새가 아주 심했는데, 신경질이나 화를 낼 때면 냄새는 더욱 고약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집중해 듣지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할 뿐 아니라 기억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던 아내는 어머니가 다운증후군인 남동생만 보살피니 자신은 늘 외롭고 거절당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며, 쉽게 남을 시기했지요. 그러다가 열아홉 살 때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슬픔과 두려움에 싸여 살아왔으며, 집안에는 용을 비롯한 갖가지 형상을 그려놓은 부적들을 붙여놓았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아내는 이유 없이 화를 잘 냈고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지요. 남을 잘 때리고, 심지어는 목 졸라 죽이고 싶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아내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던 중 자신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련회 전 주 금요일부터는 너무 불안해하며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수련회 첫째 날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아내가 귀를 막고 몸을 마구 떨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처럼 “엄마! 엄마!”를 찾았지요. 바로 아기 귀신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죽이고 자살한 엄마 귀신도 드러났지요. 하지만 목자의 권능으로 귀신들이 나가자 아내의 표정은 이전과는 너무나 달리 밝아졌습니다.

평생 어둠의 영에 시달려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내를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 8개국에서 참석한 농아들의 귀가 열려

‘2017 만민 하계수련회’에는 독일, 라트비아, 덴마크, 페로제도, 오스트리아 이상 유럽 5개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총 8개국에서 화상(네프시스 다중 화상 사이트)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공급받으며 믿음을 키워오던 농아 성도들이 사모해 참석했다.

치료의 역사를 고대하던 수련회 첫째 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이 목사가 전체를 위해 환자기도를 해 줄 때 과연 그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호사우홍 성도(여, 56, 말레이시아)는 우상을 버리고 참석하여 전혀 들리지 않던 오른쪽 귀에 소리를 듣게 되었고, 미약하게 들리던 왼쪽 귀는 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행복하게 간증했다. 세 살 때 열병으로 농아가 된 유크쥬 라몬드스 성도(남, 30, 라트비아)는 처음으로 참석해 오른쪽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왼쪽 귀는 이전보다

더 잘 들린다고 간증했다. 또 한스웨이헤 한센(남, 32, 페로제도), 메이프리트 웨이헤 한센(여, 39, 페로제도) 남매는 재작년, 작년 수련회를 통해 양쪽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누나 메이프리트 웨이헤 한센 성도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 잘 듣게 되었다.

다히 지트테 성도(여, 60, 덴마크)는 양쪽 귀의 보청기를 빼고도 잘 들을 수 있었고, 블라스레베카 바바라 성도(여, 47, 독일)는 소리를 듣게 됐으며, 선천성 농아인 탄아칸 탄티시타치 성도(여, 33, 태국)는 미약하게 소리를 듣게 됐으나 지금은 더 잘 들린다고 한다.

이 외에도 선천성 농아인 추○○ 성도(여, 55, 중국)는 왼쪽 귀가 열리고 습진과 자궁냉증을 치료받았으며, 찐○○ 성도(여, 53, 중국)와 찐○○ 성도(남, 53, 중국)는 양쪽 귀가 열렸다. 또한 네비게스 엘비스(남, 22,



라트비아, 르네 사니타(여, 27, 라트비아), 야시톤 콩카 왕(남, 22, 태국), 판다잉 수와논(남, 22, 태국), 반티사 티산 반한(남, 42, 태국), 프롬프라센 랏타칸(남, 35, 태국), 툰타칸 수파폰(여, 57, 태국), 친 흑 령(남, 41, 말레이시아), 라우 욱빈(여, 30, 말레이시아), 로 쉬윈(여, 38, 말레이시아), 리우칼 폰드(남, 23, 말레이시아), 오소현(여, 26, 한국), 최춘화(여, 45, 한국) 등 많은 성도가 귀가 처음 열리거나 이전보다 더 잘 듣게 되어 기쁨의 간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안경 없이 선명하게 보이고, 척추 결핵 후유증도 치료 받았어요”

낸시 성도 (24세, 인도)

저는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응답과 치료를 받기 위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와 『치료하는 여호와』를 읽고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만민 하계수련회 첫째 날, 믿음으로 치료받기 위해 열 살 때부터 착용하던 안경을 벗고 교육에 참석했는데, 은사집회 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안경 없이도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아주 작은 글씨도 깨끗하게 보였지요. 이뿐 아니라 척추 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받아 남편과 함께 캠프파이어 때 서서 찬양하는 데도 전혀 통증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분쇄골절을 치료받아 목발 없이 걸게 되었어요”

박점옥 권사 (55세, 창원만민교회)

지난 2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발목 뼈 2개가 다 부러지고 13조각이 나뉘며, 팔꿈치 뼈는 가루가 되고 왼쪽 손가락 인대가 나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의사는 중상이라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도 장애가 올 수 있다고 말했지요.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은 뒤 통증이 사라지고 출혈이 멈췄으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뒤에는 일어설 수 있었고, 몸이 가볍게 느껴졌지요.

8월 7일 수련회 첫째 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환자기도를 받은 뒤로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고, 돌아갔던 다리뼈도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양다리의 피부 아래 정맥이 살아나 피부색이 바뀌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실로미 아브라모브 목사 (59세, 이스라엘)

저는 양다리의 피부 아래 있는 정맥이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리 부종이 심하고 혈액 순환도 안 돼 다리의 피부색이 사커렇게 변했지요.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지팡이를 짚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8월 4일(금),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뒤 사커멧던 다리의 피부색이 바뀌었고, 정맥 부위의 압박이 사라졌으며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더욱 호전되어 체육 대회 때에는 줄다리기 선수로 출전해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도 가졌지요. 목자의 권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스트레스로 항상 아랫배가 답답했는데 치료받았어요”

와다나베 에리나 자매 (22세, 일본)

작년 11월부터 아랫배가 항상 답답했습니다.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지요. 치료받기 위해 제 모습을 돌아보고 화개하며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과연 첫째 날,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증상이 싹 사라져 수련회 내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게도 역사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다섯 살 아들의 위염이 치료되었어요!”

권첸수 성도 (45세, 싱가포르)

제 아들(5세)은 2년 반 넘게 기침을 많이 하고 두통과 열이 있었으며, 밥을 먹으면 자주 토하였습니다. 의사는 위염이라고 하였지요. 아들의 증상은 약이나 병원치료를 물론 민간요법까지 동원해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랍게 아이가 식사도 잘하고 이전 증상들이 다 사라졌을 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동안 전혀 피곤해하지도 않고 잘 지냈지요. 할렐루야!



“허리와 발목 통증이 사라지고 온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최 에브게나 성도 (43세, 에스토니아)

너무나 오고 싶었던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와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매우 행복했고,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련회 첫째 날 은사집회 시,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은 뒤 허리와 발목 통증을 치료받아 온몸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축복이 넘치는 공간 안에서 만민의 모든 것은 인상적이고 매우 훌륭했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층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경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반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밭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문D/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